

共同體 理論과 그 地理學的 解釋에 關한 研究

鄭 鎮 元*

1. 序 論	4. 韓國의 村落共同體
2. 共同體 論議의 現況	5. 村落共同體와 村落形態
3. 共同體 理論과 地理學	6. 結 論

1. 序 論

村落은 인간의 보편적인 定住類型으로서 田園文學의 主題가 되고, 道德性的의 源泉이며, 共同體의 이상적인 형태(the utopian form of community)이다.¹⁾ 巨大都市에 馴致된 현대인에게 그곳은 삶의 뿌리이며, 꿈의 産室이고, 回歸를 손짓하는 두고 온 故鄕들이다.

한국 전통사회 民衆²⁾들의 모듬살이³⁾의 原型을 空間的 시각에서 확인하는 일은 촌락—그 대표적인 凝集型인 集村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집촌의 形成動因은 촌락을 造形하는 촌락 내외의 여러 가지 조건들의 求心力과 遠心力의 작용과정에서 찾아질 수 있다. 촌락형성의 主體는 당대의 上部構造的, 社會經濟的 조건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기본관점을 가지고, 집촌형성의 원초적 內在原因을 촌락공동체의 存在條件이 되는 凝集原理에서 찾고자 하였다.

기존의 共同體理論을 지리학적 시각에서 점검하고, 그것을 공간적 脈絡에서 재구성하여 景觀造形者 중심의 공간구성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며 이와같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들이 주로 검토되었다.

- 1) 공동체, 촌락공동체에 관한 기존의 연구성과(개념, 이론, 연구역사)를 概觀하는 일.
- 2) 공동체이론을 空間現象의 설명원리로 바꿀 수 있는가의 문제.
- 3) 한국의 공동체, 촌락공동체에 관한 연구활동의 현황과 연구내용을 밝히는 일.
- 4) 한국 촌락공동체의 存在條件과 機能을 살펴보고, 그것을 촌락형성조건과 연관시키는 문제.
- 5) 기존의 촌락연구의 觀點을 반성하는 일과 인간적인 촌락공간의 再創造에 지리학이 이바지하는 문제.

공동체논의는 다분히 價値含蓄의이고 規範的인 측면을 내포하며 연구자의 志向에 따라 다양한 개념정의가 행해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합의된 적용 準據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

* 서울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講師

1) Bunce, M., 1982, *Rural Settlement in an Urban World*, St. Martin's Press, New York, p. 28.
 2) 劉載天, 1984, 「緒: 민중개념의 내포와 외연」, 劉載天編, 民衆, 文學과 知性社, pp.11~17 참고. 민중의 개념은 일반화된 정의가 없는 형편이나, 본고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疎外된 사람들(韓完相), 權力엘리트들로부터 소외된 일반백성(金柱演), 그러나 역사의 主體가 되는(金容福, 韓相震) 대다수 人民(韓相範)으로 개념화한다. 基層民은 민중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였다.
 3) 신기철·신용철, 1980, 새 우리말 큰사전, 三省出版社, p.1170 및 p.1729 참고. 「모듬」은 「합쳐서 전부」의 뜻인 부사 「모두」의 또는 「모으다」의 방언 「모두다」의 명사형이며, 「-살이」는 「어떻게 살아가는 생활」의 뜻인 접미사로 空間的 含意도 있다. 「모듬살이」는 공동체적 삶의 원초형을 표현하는 우리말로 적절하며, 漢字語 「聚居」에 상응한다.

우기 그것을 공간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로 바꾸는 경우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고, 現場연구가 토대로 되지 않은 원리의 조작에는 지나친 추상화와 무리한 關係構築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연구가 진행된 것은 촌락형성의 여러가지 條件들을 主體로서 收斂하고 그들을 자체의 文化過程을 통해서 實體化하는 촌락공동체에 관한 이론검토 및 理念型의 추출과정이 본격적인 집촌연구의 先行作業으로 유용하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2. 共同體 論議의 現況

(1) 共同體論의 擡頭

모둠살이와 터잡음의 욕구가 인간의 意識과 생활에 근원적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본다. 완전한 홀로서기와 非土着的 完全分散의 삶이 가능하다면 사회학과 지리학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동아리되어 터잡아 사는」 社會化와 空間化의 기본명제가 인간생활과 항상 같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전통사회의 共同體가 붕괴됨과 동시에 物量과 規模의 확대, 移動性의 증대, 機能主義의 팽배라는 현대 大衆社會의 문제상황이 야기되었다. 사람들은 「고독한 群衆」으로 모래알처럼 原子化되고, 결국 그들이 속한 공간, 사회에서 疎外되었다.

현대를 소외(alienation), 심성적 단절(moral fragmentation), 비참여(disengagement), 분절성(segmentation) 등으로 특징짓는다면,⁴⁾ 공동체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기된 개념인 것이다.

“태초에 있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이며, 그것은 인간과 神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공

동체였다.”⁵⁾ 공동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열망은 연면히 지속되어 온 인간의 心理的, 사회경제적, 역사적 요구였다고 본다.

공동체적 삶의 욕구는 근원적으로 공동체의 여러가지 특성들이 발생·함양된 전통사회에 대한 동경이라는 과거지향의 愼意가 강하지만, 한편 그것은 현존하는 문제상황의 克服·止揚과 더불어 미래사회를 향한 代案으로서의 뜻도 지닌다.

공동체적 삶을 통하여 自己正體의 안정적이고도 확실한 인식 및 自我의 실현과 기능적 효율성의 증대, 물질적 생활의 향상 등이 실현되기를 회구한다. 대중적 사회에서 世俗化, 원자화된 인간들의 正體危機 극복과 소외된 삶의 공간적, 사회적 회복에 대한 열망이 현재의 공동체 논의의 동기를 이루는 것이다.

(2) 共同體의 概念

어떤 대상이나 實體의 본질을 克明하게 드러내는 用語의 선택과 사용은 중요한 일이다. 사실과 가치, 현상과 규범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 실체확인이 어려울 뿐아니라, 연구자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개념과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목적에 맞추어 공동체의 定義를 확실히 하는 일이 우선 艱요하게 된다. 바람직한 것은 문제의 극복과 새로운 삶의 지향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한국적 상황이라는 문제틀 내에서 공동체논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Hillery, G.A.는 공동체의 정의를 시도한 그의 논문에서⁶⁾ 공동체에 대해서 내리진 94개의 정의들을 특성별로 분류한 결과, 그가 아무리 추상화하여 그 정의들을 묶어 줄이려 해도 16개 이하로 좁힐 수 없었다는 것을 실토했던 것은 공동체의 개념정의의 어려움을 잘 표현한 것이다.⁷⁾

현대의 공동체 연구자들이 공동체의 개념을 정의하는 경향은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⁸⁾

1) 공동체를 同質性을 가진 小集團과 동일한

4) Poplin, D.E., 김경일 譯, 1985, “공동체의 개념,” 慎鏞廈 編, 1985, 공동체 이론, 文學과 知性社, p. 22.

5) Nisbet, R.A., 지승중 譯, 1985, “공동체이론의 역사,” 慎鏞廈 編, 前掲書, p. 112.

6) Hillery Jr., G.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7) Bell, C. and H. Newby, 김경일 譯, 1985, “공동체의 이론들,” 신용하 編, 前掲書, pp. 61-63.

8) 신용하, 1985, “서설: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추구,” 신용하 編, 前掲書, pp. 14~15.

것으로 개념화하는 경향으로 이들은 종교공동체, 詩人공동체, 학문공동체 등의 용어를 쓴다.

2) 공동체를 타인과 일체가 되어 協同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 정신적 현상과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으로 이들은 心性的 공동체와 大衆社會를 대조적인 것으로 본다.

3) 공동체를 地域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으로 이들은 공동체를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본다.

이와같은 공동체의 다양한 정의들을 연구의 영역에 따라 적절히 수용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生産手段의 共有를 기초로 하는 社會經濟史的 개념의 共同體(Gemeinde)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아울러 공동체 삶을 지향하는 촌락사회의 心性的, 文化的, 歷史的인 여러가지 조건들을 수용하고, 현대 대중사회의 문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보다 의미가 포괄적이 된 공동체의 이념도 아울러 중요시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보편적, 거시적, 원리적 개념으로서의 공동체와 실제중심적,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체의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모두 필요한 일들이 된다.

(3) 共同體 研究의 歷史

공동체의 재발견은 19C 사회사상에 있어 괄목할 만한 발견이었다. 공동체야말로 19C 사회사상과 그에 시대적으로 앞선 理性的 시대의 사회사상을 확연히 구별짓는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기에 나타난 사상사적 전통은 첫째로 산업혁명,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일어난 일련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共同主義的(communitarian) 전통을 회복하려는 생각과 둘째로 근대화를 전통사회로부터의 개인의 해방과정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자유와 이성 및 자유로운 의지를 주장하는 個人主義的(individualistic) 전통이었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주의적 전통 안에서 사

람에 따라 다양한 이데올로기적 志向이 있을 수 있다.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移行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類型的으로 파악한 Tönnis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부정적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牧歌的인 農村共同體의 생활과 가치들에 대한 동경과 향수를 보이고 있다.

한편, Hegel이나 Schiller는 공동체의 가치들과 산업화의 결과들을 조화시켜 공동체의 개념을 재정립하려는 진보적, 자유주의적 태도를 가졌다. 이에 대해서 Marx와 Rousseau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社會經濟的 조건들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혁명적인 변혁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연상태로의 理想鄉的 공동체, 또는 私有財產이나 노동의 착취가 없는 共產制 사회에서만 진정한 인류애는 가능하다고 보았다.⁹⁾

제3세계에 있어서의 공동체논의는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식민지 경험을 겪은 오늘날의 제3세계에서는 私的 契機가 共同的 契機를 일정한 수준에서 維持・溫存시킴으로써 공동체적기는 解體되지 않고 사적계기와 맞물려 종속적, 타율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공동체론은 사적계기 및 이에 연관된 외부적 힘이 恣意的으로 행사하는 강압과 歪曲으로 말미암아 「實體」로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原理」로서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장래의 공동사회를 이론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매개」로서의 공동체적 삶에 관한 論議 이상으로 될 수는 없게 된다.¹⁰⁾ 한국사회의 60년대 이후의 民俗次元의 文化運動은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공동체의식을 다시금 확보하고 民衆的 삶의 보편성을 이 땅에 구체화하여 진정한 민족·민중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¹⁾

3. 共同體 理論과 地理學

(1) 共同體의 地域 前提性

인간은 地域을 逸脫하여서는 존재할 수 없다.

9) 김경일, 1985, “공동체론의 기본문제,” 신용하 편, 전계서, pp.186~188.

10) 朴玄採, 1984, “공동체론, 공동체 운동,” 共同體文化, 제2집, p.46 및 p.60.

11) 蔡熙完·林賑澤, 1982,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한국문학의 현단계, 창작과 비평사, pp.203~205.

인간이 지역 내에서 優越體(influents)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균형을 造成하는 힘이 자연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이전된 것을 뜻할 뿐, 인간의 恣意가 허가된 것은 아니다.¹²⁾ 인간의 地的 羈束은 극복되기 어려운 것이다.

공동체가 단순히 社會集團·組織이라는 사회학적 개념으로만 한정되거나 理念型的 定立을 위한 추상화의 대상으로만 간주된다면, 공동체 논의는 지리학의 범주밖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전기한 바 Hillery는 공동체의 대표적 정의를 추출하는 데는 실패하였으나,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 안에서 (within a geographical area)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共同的 紐帶를 갖는 사람들로 구성된다.”¹³⁾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공간 範域을 전제로 공동체를 정의한 내용들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Kaufman, H.F. “공동체적 場(field)은 인물들과 사건들을 결정하는 특수한 지역사회적 風土(ethos)를 지닌 무대로 想定할 수 있다.”¹⁴⁾

Sutton, W.A. & Kolaja, J.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거주하는 일단의 가족들로 이루어지며 여기에서 그들은 集合的 正體感을 지닌 어느 정도 완전한 사회문화적 정의를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서 그들은 지역을 공유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간다.”¹⁵⁾

Sjoberg, G. “일상적 활동들의 가장 커다란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한정된 지리적 영역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의 집합체.”¹⁶⁾

Hawley, A. “거주인구에서는 共生的이며 共同的인 관계들의 유형이 발전하는데 그 본질은 거주지에 대한 집합적 반응이며 나아가서 그것은 환경에 대한 유기체의 적응을 말하는 것

이다.”¹⁷⁾

Eyles, J. “상호작용하는 對面集團(face-to-face groups)이 근거하는 공간적으로 한정된 區域.”¹⁸⁾

(2) 村落共同體

근본적으로 지리적 토대는 공동체의 存在樣式을 규정하며, 공동체적 생활은 촌락경관으로의 物化過程을 통해서 촌락공동체로서의 특성을 강화하게 된다. 공동체가 전통사회의 기본적인 定住類型인 촌락으로 實體化되고, 동시에 촌락에 근거한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正體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양자가 상호規定的 關係 속에서 존속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공동체가 공간적 拘束性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 촌락공동체인 것이다. 資本主義의 진전과 동시에 급속한 都市化가 수반되어 공동체가 붕괴되고 촌락이 空洞化되는 것은 공동체의 村落根據性을 잘 드러내는 것이다.

일본의 福武 直은 공동체를 地域社會(community)와는 다른 개념으로 인식한다. 즉, 공동체는 歷史的 特殊集團으로서 生産—生活의 共同組織이라고 보고 공동체성립의 본질적 계기로써 상호의존치 않으면 생산할 수 없는 共同社會性(Gemeinschaft)과 공동체의 외부에 대한 封鎖性(Geschlossenheit)을 들었다.¹⁹⁾ 전기한 바 대부분의 공동체 정의가 지역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공동체=촌락공동체라는 인식이 크게 잘못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근대사회의 성립과 함께 대중정부, 대중교육, 대중생산, 대중매체 등의 기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복지라는 느낌에 따르는 안정감이나 귀속감 등은 가져다 주지 못했다.

12) 水津一朗, 1980, 社會地理學의基本問題, 大明堂, p. 35.

13) Hillery Jr., G.A., 1955, *op. cit.*, p. 11.

14) Kaufman, H.F., 1959, “Toward an international conception of community,” *Social Forces*, 38, p. 10.

15) Sutton, W.A. and J. Kolaja, 1960, “The concept of community,” *Rural Sociology*, 25, p. 197.

16) Sjoberg, G., 1965, “Community,” in Gould, J. and W.L. Kolb, eds., *Dictionary of Sociology*, Tavistock, London, p. 115.

17) Hawley, A., 1950, *Human Ecology: A Theory of Community Structure*, Ronald, New York, p. 87.

18) Eyles, J. 1981, “Community,” in Johnston, et al., eds.,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The Free Press, New York, p. 46.

19) 崔在錫, 1985, 韓國農村社會研究, 一志社, 서울, p. 87.

또한 이러한 사회적 量産過程의 대표적인 결과로서의 오늘날 대도시는 우리에게 공허한 잿빛 공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脈絡을 알 수 없는 단편적 자극들의 집적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공간은 추상적이고 동환적이며, 우리에게 하등의 실감나는 체험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금세기에 팽배한 疏外感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Nisbet은 “작은 규모와 안정된 구조의 공동체”를 들고, “거기서만 오직 사회적 재건을 시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바라는 것들에 본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살며 함께 일하고 함께 겪으며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²¹⁾

村落共同體 연구의 地理學的 意義는 다음과 같다.

1) 社會集團으로서의 촌락공동체와 공동체적 삶으로서의 기능이 어떻게 공간적으로 構造化되느냐를 밝힌다.²²⁾

2) 촌락공간의 이해를 住民中心的으로 행할 수 있다. 민속차원의 凝集諸要因이 용해되어 있고, 기층민의 공간적 삶의 특성이 溫存된 촌락공동체는 자생적 기층문화 이해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조건의 응집결과로서의 촌락공동체를 역사적 맥락에서 연구함으로써 현존하는 定住의 문제상황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의 이상향적 공동체마을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중심지이론체계의 消失點으로서의 촌락이 아니라 땅에 羈束된 역사적 삶을 내포한 球로서의 촌락연구가 요청된다.

5) 景觀위주 연구가 경도되기 쉬운 即自的, 支配文化 受容的, 형식적 記述의 연구경향에 반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촌락공동

체연구가 지리학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로서는

1) 인간의 근원적인 領域的 삶의 모습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의 소극성.

2) 사회집단의 공간생활과 그 實在化 사이의 因果관계, 즉 기능과 구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부족.

3) 중심지이론에 의한 定住體系의 空間分析的 연구에서 소외된 촌락에 대한 인식결여와 인간의 구체적, 실존적 삶의 내용을 捨象한 공간 자체의 기능위주 분석태도.

4) 경관의 外形的 기술과 설명에만 치우쳐, 경관 이면에 잠재된 역사와 내적 구성, 영역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고가 부족하였다.

5) 現狀維持的, 지배문화 墨守의 태도로 공간현상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살만한 공간의 창출과 나아가 공간발전전략을 세우는 일에 무관심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촌락공동체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의 촌락공동체는 지배계급의 억압수단이며, 지배를 정당화하는 빌미이다. 전통적인 아시아적 生産樣式의 틀²³⁾ 내에서 파악되는 촌락공동체는 「원시적이며 原生的 모습을 갖춘 小宇宙로서의 공동체」라는 피상적이고 停滯的인 모습만이 상대적으로 강조된다. 이러한 조건이 제국주의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²⁴⁾ Marx는 인도의 촌락공동체와 관련하여, 牧歌的인 촌락공동체들은 비록 외면적으로는 악의 없게 보이지만 언제나 東洋的 專制主義(oriental despotism)²⁵⁾의 굳건한 기초가 되어왔고, 인간을 최소한의 범위 속에 가두어 놓고 迷信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들고 전통적 規範에 예속시켜 놓았으며 인간의 정신으로

20) 김우창, 1984, “사회공간과 문화공간의 창조,” 한국사회의 발전논리, 홍사단출판부, p. 201.

21) Poplin, D.E., 김경일 譯, 前掲書, p. 24.

22) Bunce, M., 1982, *op. cit.* pp. 44~50.

23) 아시아적 농업공동체의 특성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고.

大塚久雄, 李榮薰 譯, 1982, 共同體의 基礎理論, 돌베개, pp. 49~62.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논쟁에 관한 것으로 다음 서적이 있다.

鹽澤君夫·福富正實 著, 진양사 편집부 譯, 1984,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지양사.

24) 김경일, 1985, 前掲書, p. 205.

25) Wittfogel, K.A., 1957, *Oriental Despotism*, Yale Univ. Press.

부터 위대함과 역사적 에너지를 빼앗아 오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²⁶⁾ 마을공동체가 단순히 아시아적 형태의 동양적 전제국가의 통치대상이나 수단으로 파악되는 전자의 입장과는 다르게 역사적 시기의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촌락공동체 자체의 내부적 力動性和 村民의 생활을 생생하게 붙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에 유의한다.²⁷⁾

4. 韓國의 村落共同體

(1) 研究의 動機

민중적 모듬살이의 가장 구체적인 단위가 바로 자연부락에 根據하고 있는 촌락공동체이다.²⁸⁾ 전근대 사회의 농민들이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살아온 촌락공동체야말로 그들의 절실한 생활환경이었으며 공동체규제에 의하여 그들의 생활은 실질적으로 통제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²⁹⁾

한국의 촌락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시대의 공동체를 복원하거나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전통사회 보통사람들의 적나라한 삶의 모습을 밝히는 일과 그들의 삶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物象化되고 공간구조로 굳어졌는가를 보려고 함이다. 대다수 기층민들은 동아리 되어 소규모 民村을 이루고 있었으며 분포빈도에서도 촌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을 것이지만, 班村에 밀려 匿名化되고 疏外되어 단지 지배층의 收取의 대상으로만 존속하였고 그러한 맥락이 현존하는 우리의 농촌, 농민의 삶 속에도 그대로 轉位되어 잔존되어 있다고 본다.

한국의 촌락공동체 연구는 그 성격규정으로 1) 民衆中心, 2) 전통적 농촌사회의 典型으로서의 代表性, 3) 自生的 농민문화가 溫存되어 있는 공간, 4) 공동적 계기에 주도되는 모듬살이의 原型에의 近接性, 5) 社會經濟史의 계기적 발

전에 따른 공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의 촌락의 歷史性 6) 支配文化 墨守의 공간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공간의 재건이라는 측면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2) 研究의 現況

대부분의 우리 나라 연구자들은 원시공동체만을 인정하는 경향이다. 原始共同體의 특징으로 사학자들은 共同生産(共同勞動), 생산물의 공동所有・分配・소비 등을 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生産手段의 共有, 母系氏族, 공동의 종교적 祭典, 공동노동, 생산 및 소비활동의 단위와 씨족공동묘지 등을 들고 있다. 촌락공동체의 형성시기는 崔文煥 등은 中世로, 朴根昌은 中世封建社會로, 李英依은 集團所有에서 私的所有로의 移行期로 보고 있다. 한편 李北滿과 金炳夏는 조선후기의 촌락공동체에 언급하면서 그 특징으로 自治, 共有財產, 村民協議에 의한 공유재산 처분, 共有地의 공동경작, 촌락은 남세 단위, 공유지는 공동개간, 後嗣없는 부락민 유산, 도망간 부락민 유산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³⁰⁾

社會學에서는 대체로 최근의 공동체에 관심이 많으며 일상적 生活共同體, 前近代農村, 공동소유, 가족단위, 情緒的・安定的 인간관계, 原初의 관계(狹小性)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 崔在錫이 결론적으로 추출한 촌락공동체의 특징은

1) 경제학자의 觀點을 받아들이면 공동체는 역사적 개념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여 전개되면 원칙적으로 解體・消滅된다. 2) 地域集團이다. 3) 生産手段을 공동소유한다. 4) 생산을 위한 共同組織을 가진다. 5) 構成單位가 家族이다. 6) 封鎖의 집단이다. 7) 이러한 특징을 부락단위가 구비하고 있을 때, 部落共同體라고 말한다.³¹⁾

인류학의 鄭勝謨의 연구³²⁾는 史的唯物論에 입

26) Nisbet, R.A., 지승중, 譯, 前掲書, p. 133.

27) 김경일, 1985, 前掲書, p. 207.

28) 林在海, 1983, “우리 민속놀이의 건강성과 오늘의 놀이,” 世界의 文學, 29호, p. 75.

29) 朴鍾烈, 1976, “韓國農民的 社會的 性格에 관한 研究,” 人類學論集, 제 2 집, p. 26.

30) 崔在錫, 1985, 前掲書, pp. 91~101.

31) 최재석, 1985, 前掲書, pp. 102~103.

32) 鄭勝謨, 1984, “同族 地緣共同體와 朝鮮傳統社會構造,” 泰東古典研究, 창간호.

각한 新마르크스주의 인류학자들의 이론을 우리나라의 동족부락(그의 同族地緣共同體)의 설명에 적용하면서 종래의 사회학적 인식과는 상이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한국의 공동체논의는 그 연구의 日淺함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공동체의 역사적 實存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도입된 이론들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논의가 독단적으로 진행되어 경직된 판단에 집착되어서는 안될 것으로 본다.

한국에서의 공동체논의를 자본주의 生産樣式의 發生=共同體의 崩壞라는 경제사의 기본 假說에 준하여 전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³³⁾ 첫째 그것은 Marx의 기본명제에 따른 것으로 單線的 社會發展觀을 반영하고 있고, 둘째 공동체를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사라져간(또는 해체되어야 할) 역사적 遺制로, 즉 근대화 과정에서 극복되어야 할 것, 셋째 Marx의 촌락공동체이론은 촌락생활 전체를 포괄하는 분석적 틀을 제공하지 못한다. 네째 서구에서 발전된 사회경제사적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 3세계의 공동체를 보려는 인식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

(3) 共同體의 歷史的 轉位

사회경제사적 개념으로서의 原始共同體(Gemeinde)는 농업생산력의 진보와 私的 所有의 증대에 따라 지배계급이 형성되면서 「보다 큰 사회의 일부로서의 공동체로 존속」하게 된다. 身分制에 입각한 계급사회인 경우 공동체는 전체 사회구조를 장악하는 지배계급에 의하여 종속적, 타율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朝鮮時代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된다.

朝鮮시대 兩亂 이후의 常民들의 同族마을 형성은 신분상승 도모 움직임이며, 이는 조선시대의 지배적인 體制이테올로기의 강화와 확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共同體文化의 축소 내지 해체에 기여한 반응양식이라고 볼 수 있다. 19C 이후의 民亂은 촌락공동체와 그 주민들이 자신들이 처한 종속적, 타율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려 했던 움직임이다. 촌락공동체가 거점이 되어 공동체적 삶을 위협하는 전체 사회구조에 대한 개혁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일제강점 하에서는 의도적인 촌락공동체 파괴가 획책되었다. 自然村落 중심의 里洞數를 줄여서,³⁴⁾ 行政便易에 의한 인위적인 촌락의 통합을 자행하여 촌락공동체의 單位性과 正體性을 혼란에 빠뜨렸다. 한편, 토지조사사업을 통해서 自作農層, 즉 농촌사회의 주축이 되는 농민문화의 保護層을 몰락시켜 결국 촌락공동체의 해체를 시도하였다.

해방후에는 농지개혁, 6·25사변, 화폐경제,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강고화로 산업간 불균형 개발정책 등이 촌락공동체의 성격을 크게 변모시켰으며 공동체이념과 문화가 촌락법주를 넘어 확산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開放體系로서의 community 개념이³⁵⁾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 내는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공동체논의는 공동체의 再發見 내지 回復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늘날 공동체의 재발견 움직임은 작게는 實驗的 공동체운동에서부터 民衆文化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한 공동체운동, 현실적 모순 극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공동체의식 회복운동, 그리고 궁극적인 공동체사회 건설을 위한 이론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대두되기 시작한 自生的 發展에 관한 논의는 공동체문화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자생적 발전이란 후진국이 자본주의 산업국가들 기계적으로 따라가려는 발전 모델을 거부하며, 제 3세계 발전은 적어도 內的 本質을 갖추고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된

33) 최 협, 1986, “한국사회: 공동체·공동체 이념,” 韓國社會學, 제 20집, p. 21.

34) 山田正浩, 1980, “朝鮮의村落—洞里—의規模と空間構成について,” 地理學報告, Vol. 50, 愛知教育大學, pp. 29~30. 里洞數, 1912년 60,826개, 1918년 27,626개.

李泰鎮, 1987, 韓國史에서의村落共同體와地方自治制(1987년 9월 15일, 서울大學校 Forum 發表文). 里洞數, 1910년 63,845개, 1933년 28,336개.

35) 金漢超, 1960~1970, “地域計劃에서의 Region과 社會學的 Community概念,” 韓國社會學, 제 5집, p. 10.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우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문화는 촌락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농민의 基層文化이다. 그리고 한국의 기층문화는 공동체적 문화이고 또한 그것은 민중문화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³⁶⁾

(4) 村落共同體의 存在條件 및 機能

인류의 생활공간은 等方等質의 靜態的인 유크리드空間이 아니다. 인간생활이 시원적으로 자연적 조건을 토대로 單元性을 갖는 領域의 삶을 영위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원시 Arunta族의 Horde(群團)의 영역은 자연조건, 경제생활, 祭祠儀禮들이 상호관련을 맺으면서 相助의 생활양식을 保持하였으며, 이러한 영역중심의 상부상조의 호응관계를 水津一朗은 地域統一體(landschaftliche Einheit)라 하고, 최소의 지역통일체를 基礎地域이라 이름하였다. 기초지역은 村落, 경지, 교통로, 용수로, 山林 등이 구성요소로 기능적 통일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통일을 창조·유지·개변하는 主體는 그곳에 생활하는 당대의 촌락공동체였다.³⁷⁾ 그러나, 그가 말하는 기초지역이 촌락 내지 촌락공동체와 어떤 次元에서 사회적, 공간적으로 整合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生活環境을 떠난 精神만의 정신은 없다고 Cunow, H.는 말한다.³⁸⁾ 공동체의 물질적 토대는 土地와 공동체 그 자체이다. 토지는 富의 포괄적 기반이며 공동체 성립의 물질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 占取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生産力단계에서의 노동주체인 인간은 「自然的 個人」으로서 그들이 직접 역사 속으로 가고 들어오는 「共同組織(Gemeinwesen)」을 근

저에 지닌 사회관계가 공동체라는 것이다.³⁹⁾

생산양식의 계기적 체단계에서 한국 전통사회가 어떤 位相을 차지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기초한 東洋的 靜滯性論에 立脚하여 조선농촌사회를 악의적으로 해석하여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支持하려했던 일본 강점기의 연구경향이 있었다.⁴⁰⁾ 사회경제사적 측면에서의 토지의 공동점취와 생산수단의 공유, 공동노동에 기초한 공동체의 실존을 공동체의 典型으로 보고자함에는 異議가 없으나, 그 역사적 實體를 摘示하기는 어렵고 연구성과도 미진하다.⁴¹⁾ 따라서, 한국의 촌락공동체는 공간적 단위성, 생활의 공동성, 정서적 연대성, 親族原理 등의 諸相을 포괄하는 농민들의 강렬한 공동적 삶의 전통이라는 측면에서 우선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 농민들의 공동적 삶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공동노동과 관련된 두레이다. 두레는 한국 농민사회에 독특하게 존재했던 공동노동을 위한 작업공동체(Arbeitsgemeinschaft)였다.⁴²⁾

「두레」의 語源에 대하여는 姜鋌澤·印貞植은 「輪番」의 뜻으로, 李丙燾는 圓周, 圍繞의 뜻인 「돌레」 「돌러」로⁴³⁾ 인용하는 「두르다」의 古語에서 파생된 「두루」의 뜻으로, 「모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로 共同體 그 자체를 나타내는 말로 보고 있다.⁴⁴⁾

두레는 반드시 마을(자연촌락)을 단위로 成人男子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가입과 탈퇴 및 조직의 역할에 있어 공동체적 규제가 존재하였다. 또한 두레는 마을 안에서 平民身分만의 조직이었고, 「民衆」의 작업공동체였다. 두레가 성행했던 시대에는 마을 가운데 農廳, 公廳, 洞舍, 公

36) 최 협, 1986, 前掲書, pp. 25~29.

37) 水津一朗, 1980, 전게서, pp. 46~47.

38) 水津一朗, 1980, 전게서, p. 5.

39) 大塚久雄, 1950, 共同體의 基礎理論, 岩波書店, pp. 15~27.

40) 한상권, 1987, "조선 후기 향촌사회와 향촌 사회조직 연구현황," 近代史研究會編, 韓國中世社會 鮮體期の 諸問題(下), 한울, p. 197.

41) 朴玄埰, 1984, 전게서, p. 63.

42) 신용하, 1985, "두레 공동체와 농악의 사회사," 신용하, 편, 전게서, p. 212.

43) 李丙燾, 1968, "「돌레」와 「두레」에 대하여," 思想界, 1968년 4월호 pp. 193~197.

44) 신용하, 1985, 前掲書, p. 213.

會堂이라고 부르는 共同건물이 있어서 공동집합·회의·휴식의 장소로 이용되었다. 농악은 두레에 부속된 필수적인 것이었으며 두레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농악이 없는 두레는 없었다.⁴⁵⁾

두레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공동노동의 효율성을 실현함에 있었다. 두레가 작업을 하는 토지는 그 마을의 전체농지 모두였다. 두레는 마을의 전체농지를 모두 자기의 1개의 경영지로 간주하였으며, 여기에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보이는 것이다. 두레노동의 또 다른 특징은 ‘노래하며 일하는 것’으로 노동의 고통을 ‘즐거운 노동’으로 전환시킨다. 작업의 속도는 개별노동의 경우보다 언제나 훨씬 빠른 속도로 돌격전과 같이 규율있게 공동보조를 맞추면서 진행되었다. 따라서 두레의 공동노동의 성과가 개별노동의 성과의 합보다 언제나 훨씬 크고 노동능률과 노동생산성이 높았다. 한편 두레는 공동식사와 공동휴식을 통해서 일·놀이·쉽 등이 통합되는 체험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단결을 더욱 강화하였다.⁴⁶⁾

이와같은 두레공동체의 중요성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촌락공동체 및 촌락의 사회적, 공간적 범역과 어떻게 整合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미진한 부분을 다음의 연구로 미루거니와, 다만 두레공동체의 강한 連帶性, 共同性, 統合性 등이 村落의 凝集 과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과 동시에 단위성을 갖는 촌락공간 내에서 그러한 공동적 慣行들이 쉽게 함양되었으리라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契는 원칙적으로 마을 전체가 구성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成員에는 일정한 자격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結社體(Gesellschaft), 또는 마을 결사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洞契는 그것이 마을을 단위로 자치적으로 성립되는 것

이라는 점에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⁴⁷⁾

촌락공동체의 성립과 存立條件으로 생산활동 및 그것에 직접 관련된 활동들의 일차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될 것이지만, 촌락공동체가 전적으로 경제적 기초에만 서있다고 보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촌락공동체에 傳承된 民俗次元의 여러 가지 慣行들을 살펴보면 생산활동에서 기원한 것들 외에도 村民들의 信仰, 儀禮, 놀이 등에 관한 활동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林在海는 촌락공동체를 단위로 전승되는 민속을 그 행위양식의 본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⁸⁾

판넬적·정신적 ←·····→실제적·육체적

신 양	의 례	놀 이	노 동
동신신앙 (동신제 별신굿)	통과의례 (혼례 갑상례)	민속놀이 (줄당기기 지신밟기)	공동노동 (두레 상두계)

洞神은 마을의 수호신으로 혈연을 초월해서 같은 공간에서 모듬살이를 하는 공동체 성원 전원을 한 동아리되게 해주는 구실을 하므로 洞祭를 통해서 자기들의 거주공간인 마을과 이웃을 지키겠다는 지역의식이 깊어지게 된다.⁴⁹⁾ 洞神信仰은 혈연간의 파벌이나 班常간의 계층의식을 약화시키고 동신을 구심점으로 하는 지역의식으로 統合하는 구실을 한다. 동계에 관심이 많은 마을이 보다 건전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⁵⁰⁾

각종 通過儀禮 자체가 촌락단위로 이루어지며,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촌락단위의 扶助交換의 과정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자율적 協同性을 높이는 것이다.⁵¹⁾ 또한 마을단위로 행해지는 각종 놀이도 그것이 단순한 유희적 욕구의 충족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구성원의 大同의 連帶感을

45) 신용하, 1985, 전계서, pp. 222~230.

46) 신용하, 1985, 전계서, pp. 231~235.

47) 최 협, 1986, 전계서, p. 25.

48) 林在海, 1986, 민속문화론, 文學과 知性社, p. 71.

49) 林在海, 1983, 전계서, p. 207.

50) 林在海, 1986, 전계서, p. 79.

51) 李南植, 1979, 韓國 山村의 扶助交換에 관한 研究, 嶺南大碩士學位論文, pp. 31~36.

강화하고 확인하는 수단으로, 일 속에 용해된 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적 삶의 특성들이 촌락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具現되고 있으며 또 어떤 空間單位에 누적되어 實體化되었는지에 대한 지리학적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村落共同體와 村落形態

村落共同體는 일정한 지리적 領域을 중심으로 공동생활을 통해서 生産 및 社會的 欲求를 自給 自足하여 상호작용을 유지해 온 對面集團이나 조직이다. 이러한 공동체가 土着定住할 때 村落은 發生된다. 즉, 촌락이란 촌락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사적 조건, 類의 존재로서의 인간의 心性的 측면 그리고 歷史的 慣性 등의 종합적인 物化결과로 볼 수 있다.

촌락공동체는 民衆이 주체가 되어 外因的(上部構造的), 內因的(下部構造, 土臺) 제조건을 收斂하고, 그들의 구체적 삶을 통하여 상기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實체화하는 과정에서 發生・存續・變形되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 공동체 형성의 여러가지 원리는 촌락형성의 직접적인 凝集諸條件이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형성된 촌락공간구조는 역으로 촌락공동체의 단위성, 통합성,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環流的(feedback) 因果關係에 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생산수단을 共有한 사회경제사적 개념의 共同體의 존재를 우리 역사에서 확인해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며, 그 방향의 연구가 극히 불충분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공동노동과 기타 농업활동에 관련된 공동적 慣行 등이 촌락의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인정된다.

생산양식의 내용과 土地制度 등이 촌락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 예로서는 German共同體와 集村形成 간의 밀접한 관련에 관한 것이다. 平等原理를 실현하기 위해서 耕地의 共同占取와 共同勞動에 기초한 耕區制(Gewannsystem)와 三圃制(Dreifeldsystem)가 경작강제에 의해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共同體的 規制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촌락형태는 集村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中央의 集村을 圍繞한 것은 菜園(Wurt), 共同耕地(Ackerland), 共同地(Allmende)가 있었다.⁵²⁾

경제적 조건 외에도 凝集的 定住를 촉진하는 요인들로서는 혈연적 연대, 전기한 民俗次元의 慣行들, 心理的・情緒的 요인들, 당대 社會構成體의 上部構造的 조건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血緣的 地緣共同體인 우리나라의 同族村落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는 대부분 촌락의 景觀的 특성과 구조, 形成過程 등을 單線的으로 기술함으로써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을 묵인하는 입장에 있다고 본다. 촌락집단 내부에 누적적으로 再生産되어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不平等의 문제를 捨象하고 단지 이데올로기의 物化過程이나 그 결과로서의 景觀과악에만 치중해온 감이 있다. 동족집단은 공동체의 이념——完全성과 全人사상, 평등주의, 박애정신 또는 형제애⁵³⁾——에 비추어 보면 공동체적 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⁵⁴⁾ 충청도 촌락을 연구한 Brandt는 한국촌락을 同族마을과 非同族마을로 구분하고, 동족마을은 親族體系에 관련되어 있고 공식적이며 명확히 규정지어진 地位와 權威의 位階體系가 있고, 그에 반해서 비동족마을은 비공식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평등적 공동체(community) 원리와 평등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보았다.⁵⁵⁾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常民중심의 비동족촌락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가 되면 상민들의 동족부락도 출현하게

52) 大塚久雄, 1977, 전게서, pp. 80~108.

Weber, M., 趙璣濬 譯, 1983, 社會經濟史, 三省出版社, pp. 56~62.

水津一朗, 1980, 전게서, p. 82.

53) 김경일, 1985, 전게서, p. 199.

54) 이만갑, 1980, “전통적 협동과 촌락사회의 발전,” 한국의 사회와 문화: 한국현대사회의 문화전통, 제 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22.

55) 최 협, 1986, 전게서, pp. 22~23.

되는데⁵⁶⁾ 이는 常民들이 지배층의 경제외적 강제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신분상승을 도모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공동체문화를 민중의 문화로 규정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공동체논의가 오늘의 현실을 외면한채 맹목적復古主義에 흐를수는 없다. 그것은 지난날의 공동체를 再現시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자생적 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구축해 나갈 보다 인간적이고, 억압적인 구조가 타파된 새로운 사회구성의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공간적으로 空洞化되고, 사회경제적으로 疎外된 村落과 農民社會의 현실문제에 대한 바른 진단과 미래의 健康한 定住空間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이 있어야 될 것이다. 촌락공동체와 공동체적 삶이 解體되면 無限空間이 廢墟처럼 남겨진다. 그 침묵하는 공간 속에 戰慄하는⁵⁷⁾ 宇宙의 孤兒(cosmic orphan)들에게 긴요한 것은 촘촘한 共同的 紐帶가 있는 utopia적 공동체마을을 재창조하는 것이며, 그 役事에 공동체 이념과 지리학적 지혜가 함께 요구된다고 본다.

6. 結 論

한국 촌락의 典型을 傳統農村의 集村으로想定하고, 그 형성조건을 밝혀보고자 하는 동기에서 본연구는 착수되었다.

촌락형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렴하고, 그들로 실제의 촌락경관을 造形하는 주체는 사람들이며, 이들의 意識과 行態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 共同體原理를 基底의 조건으로 중요시 하였다.

연구결과 얻어진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적 삶의 추구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것은 현대 대중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상황—疎外, 아노미, 物量化, 기

능주의, 移動性 등이 야기한 문제의 극복과 미래의 이상적인 공간, 사회의 재창조를 위한 動因이 될 수 있다.

2) 공동체논의가 대부분 공간(지역)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원리가 공간설명에 적용될 수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공간적 표현이 촌락이며, 촌락은 공동체의 連帶性을 강화하는 영역적 단위이다.

3) 공동체의 이념—空間單位性, 完全性과 全人性, 平等主義, 博愛精神과 兄弟愛—에 부합하는 전통사회의 촌락은 常民중심의 촌락으로 본다. 그곳에 공동체이념이 具現되어 있고, 그밖에 民衆主體性, 村落數의 多衆性, 고유문화의 濫存性 등에서 민중적 모습살이의 전형이 되기에 충분하다.

4) 공동체의 存在條件들은 공간적 實體化과정을 통해서 바로 景觀적으로 集村으로 物化될 수 있는 요인들이다. 따라서, 특별한 방해조건이 없는 한 촌락은 집촌화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 社會經濟史的 개념으로서의 共同體만을 중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공동체의 개념을 인간의 心性的·情意的 측면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連帶性, 共同性, 統合性 등을 공동체의 속성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공간현상설명에 응용할 수 있다.

6) 두레는 촌락공동체의 共同性, 封鎖性 등이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적 조직으로 중요시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민중성, 조직운영의 민주성, 노동의 효율성, 삶의 신명성 등이 특징이다.

7) 村落共同體 연구가 특별히 중요시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촌락과 촌락공동체의 관계는 空間과 인간(집단) 사이의 관계로서 相互規定的 關係 속에서 성립되고 존속된다. 촌락공동체 자체의 존재 조건이 바로 촌락형성의 직접적 동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촌락은 공동체를 領域的으로 拘束하였다.

56) 常民 同族部落의 연구로 다음 논문이 있다.

劉明基, 1977, “同族集團의 構造에 關한 研究 —全南 羅州郡 山浦面 明好里(里名은 假稱인)를 中心으로,” 人類學論集, 제 3집,

57) Pascal, B., 申相楚 譯, 1959, 광세, 乙酉文化社, p.105. “이 무한한 空間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한다.”

② 촌락은 중심지 이론체계에 있어서의 消失點이 아니라 민중의 적나라한 삶과 基層文化를 內包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로서의 球로 인식되어야 한다.

③ 촌락형성의 주체는 인간이며, 그들의 공동체이다. 민중적 모듬살이의 구체적 단위가 촌락 공동체이며, 그 공간적 구체화 결과가 촌락이다. 촌락공동체는 自生的 基層文化의 産室이며, 濫存單位體이다.

④ 공동체의 轉位양상을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살핍으로써 촌락변화를 역사적 脈絡(context)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밖에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부수적 효과로서는 첫째, 동족부락이 한국 전통사회의 촌락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동족부락연구는 대부분이 촌락의 경관적 특성과 구조, 형성과정 등을 即自的으로 인식함으로써 支配文化의 당위성을 墨守하고, 촌락집단 내부에 누적적으로 재생산되어온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의 문제를 捨象하고 단지 이데올로기의 物化過程이나 그 결과인 경관의 記述에 치중해온 감이 있다. 둘째, 공동체논의는 현존하는 문제상

황의 극복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상적 사회를 향한 代案으로서의 含意도 강하다. 세째, 결국 공동체문제는 인간이 어떤 사회, 공간에 살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므로 지리학은 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되는 utopia적 村落模型을 만드는 데에도 기여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한계점이 있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첫째, 실증적인 현장연구가 유보된 본고찰은 지나친 抽象化와 무리한 關係構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공동체, 촌락공동체의 개념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현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촌락공동체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세째, 사회경제사의 계기적 발전의 有無 자체가 우리 역사에서 확인되어 있지 못한 조건에서, 공동체의 발전과 촌락형성의 관계를 전기한 발전법칙의 맥락에서 설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능력한계를 넘는 것이다. 네째, 최소한의 기능적 地域單一體, 村落, 村落共同體가 어떻게 극명하게 정의되고, 그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整合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앞으로의 검토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A Study on Community Theory and its Geographical Interpretation

Summary;

Jin-Won Jeong*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existing community theories, to transform them into spatial principles and ultimately to apply them in explaining the cohesive factors of village formation.

People have been eager for community life, much more in contemporary mass society being troubled with structural contradictions. Now it is an ideal to be realized.

Existing most rural villages have been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al societies, and also the present form of rural villages probably came into being at that time. The village makers were the very inhabitants of rural community, and they could not free from the then ideological, socio-economic and cultural circumstances.

Major findings of this examination are as follows:

1) Desire for community life has been a tendency common to most people and the village community has played a role even as a historical inertia. Communal regulation practised in the village community governed all sphere of villagers' activities, and it also exerted a strong influence on building the principles of village-making.

2) Most community definitions involve the concepts induced from space and place. This implies that community theories can contribute to the explanation of spatial phenomena. Space-

bound situation of man is scarcely overcome and community should be based on the village territory, where its identity can be easily confirmed.

3) In Korea communal way of life was distinctly materialized in common people's villages, and they can be regarded as the typical form of traditional settlements. That is true on account of majority of their numbers and distributions, commonness of membership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culture.

4) Villages are the morphological expression of community, and they have an inter-regulating, symbiotic relationship. It is therefore assumed that human settlements are clustered on the premise of village communality.

5) The existence of village community in Korean socio-economic history is hardly confirmed except the primitive community(Gemeinde). Of course this socio-economic community need not be estimated too highly. Not only socio-economic but also cultural and spiritual aspects of village community are to be regarded as important.

6) Dure, which is a popular labour organization of Korean village community, shows the best communality and co-operation. Commonness of membership, democracy of organization, efficiency of working and cheerfulness of playing are all attributes of Dure community.

7) Common people's community is the subject

Journal of Geography, Vol. 14, 1987.12, pp.105-118

* Lecturer, Colle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designs the village types. Village is a generating center of folk culture and a reservoir as well. In this respect a traditional village should be recognised more as a sphere of living organism than as a tapering point on central place system.

Lastly, it needs to be reconsidered that most

cultural geographers have concentrated upon the description of the external form of sleeping village landscapes. And also the ideas and principles gained in this study are urged to contribute to solve the problem situation of settlement and furthermore to design the future utopian village.